이상기후·일본 오염수 논란…유통가, 추석 선물 확보 비상

올 봄 '50년만의 더위'에 포도·복숭아·사과 등 착과량 떨어져
수산물 선물 세트 골머리…산지 다변화·대체 상품 개발 분주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올 여름 지리한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계 내에서 추선 선물용 원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물 선물 세트 구성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통업계는 산지 다변화와 대체 상품 개발로 위기 탈출에 나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봄은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더워 과일 작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도와 복숭아는 이른 더위와 큰 일교차로 일찍 핀 꽃이 냉해를 입어 착과량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상품이 줄어든 상황이다.

사과는 주요 산지가 이달 들어 잇따른 우박 피해를 입어 열매에 흠집이 늘었다.

여기에 장마철 엘리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엘리뇨로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수도 있다.

업계는 기후 상황이 이처럼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일 산지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그간 거래해온 지역 외 농가 접촉을 늘려 사과와 배 수급 지역을 확대하고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청과 바이어들이 아예 매일 산지로 출근해 대체 지역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시설 재배로 기상 이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애플망고와 멜론 등의 선물 세트 구성을 늘릴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도 멜론과 애플망고 등 대체 품목을 확대하고 신규 산지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마트는 과일 계약 농가를 예년보다 20~30% 확대하고, 태풍에 대비해 농가마다 나무 버팀목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롯데마트는 포도의 경우 하우스 재배 물량을 확보하고, 사과와 복숭아의 경우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기로 당도 높은 물량을 선별할 계획이다.

기상 상황뿐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도 추석 선물 세트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오염수 방류 전에 서둘러 물량을 비축하고 대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굴비와 옥돔, 멸치 등 저장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올해 추석이나 내년 설용 물량까지 대부분 확보를 끝냈고, 방사능 검사도 확대했다.

또 방사능 영향이 없는 민물이나 수입산 선물 세트도 새로 개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수입 수산물 산지를 다변화해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아일랜드와 스페인산 새우 등을 선물 세트로 개발하고 있다.

또 장어 등 내륙에서 양식하는 민물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명절 대표 선물인 굴비와 옥돔을 미리 구매해 저장고에 보관하고, 실제 판매 시점이 되면 오염수 방류 전 어획한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는 아르헨티나산 새우와 뉴질랜드산 연어, 남극해 비막치어 등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수산물을 미리 비축하고 추석 선물로 판매하기 전 다시 한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품질 검수를 강화한다.

또 국산 선물 세트의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산 냉동 새우를 신규로 선보이고, 육포와 명란 등으로 상품을 강화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완도 '노블힐스' 인기몰이

후분양 진행·샘플하우스 북적
4베이 구조·스마트홈 시스템
전 세대 '풀옵션 가전' 제공
9월부터 29세대 입주 시작

완도군청 인근 고급형 주택 '노블힐스'가 연일 샘플하우스 방문객이 줄을 잇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956-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노블힐스는 지상 5층, 3개 동, 총 2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4세대, 107㎡ 15세대로, 최고층에는 옥탑과 테라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9월 예정이다.

단지는 완도군청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군청을 비롯해 중앙시장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생활·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 완도중학교와 인근 완도초, 군립도서관 등 교육환경도 갖췄다는 평가다.

노블힐스는 고급형 주택인 만큼 선호도가 높은 4베이 구조로, 차량통제와 단지전용 CCTV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안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홈 네트워크 기기부터 가전까지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등 고급형 주택만의 특화시스템도 제공한다.

특히 전 세대 한샘 인테리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간활용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신발건조기,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전 세대 '풀옵션' 가전도 제공한다.

한편 노블힐스는 후분양으로 진행됨에 따라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샘플하우스를 운영한다. 분양문의 061-555-885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 활성화 7천만원 지원

효성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경력보유여성 취업 활성화 사업에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원금으로 45세 이상 중장년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과 회계·경리사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직업 전문교육 뿐 아니라, 직무 소양 교육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정기적인 취업 상담과 구직 정보,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어진다.

효성은 2013년부터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급식조리사, 돌봄 교사,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전문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 효성의 지원으로 총 400여 명의 여성이 취업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그 중 약 354명이 급식조리사, 돌봄 교사, 요양보호사, ERP 물류 사무관리원 등 다양한 직군의 취업에 성공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농심 13년만에 라면값 인하

내달부터 50원…새우깡 100원↓

농심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인하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새우깡 가격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있자 농심은 소비자가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라면·스낵 제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의 결정으로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진라면 제조사인 오뚜기는 7월 중으로 라면 주요 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율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팔도도 검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라면업체들의 가격 인하 이후 과자, 빵 등 다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 식품 가격 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1.39(-0.81)
↓	코스닥	874.14(-5.36)
↓	금리 (국고채 3년)	3.538(-0.030)
↓	환율 (USD)	1300.30(-6.00)

저출생 위기 극복 '무럭무럭아이적금' 판매

농협 광주본부, 오늘부터 연 최고 6.5% 우대 금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27일 남광주농협에서 28일부터 판매하는 '무럭무럭아이적금' 상품 출시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무럭무럭아이적금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예비)신혼부부와 임산부, 만 60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다. 기본금리에 더해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6.5%(세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인 1계좌, 월 50만원 이하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전국 농·축협 창구를 통해 가입가능하며, 약 1만 계좌 한정 상품으로 한도 소진 시에 판매가 중단된다.

고성신 본부장은 "무럭무럭아이적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함께 자녀양육을 위한 건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023년 9월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순금, 유모차, 농산물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JB증권 베트남' 우수직원 초청 연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베트남 내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SV)'의 현지 우수직원 4명을 본점으로 초청해 연수를 연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지난 20일부터 25일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을 선정해 광주은행 본점 및 PrimePB센터 견학과 한국증권거래소 방문 등을 통해 선진금융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은행이 후원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고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 경기 관람 등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JBSV는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은행 미래 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모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가 되어 현지에 복귀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JBSV가 베트남 최고의 증권사로 성장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인 JBSV를 출범시켰고, 2022년말 기준 총자산 498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7월 26일까지…총 1억 상금

삼성전자는 '제 9회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PC)'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SCPC는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로는 상금과 참가자 수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다.

C, C++, Java를 사용해 제한시간 내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대회에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학년과 전공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6일까지 코드그라운드 사이트(https://www.codeground.org)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7월 28 ~ 29일 1차 예선과 8월 19일 2차 예선, 두 차례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이후 최종 순위를 가리는 본선 대회를 9월 16일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과 삼성전자 채용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